

디지털 성폭력 해체하기



익산경찰서

1 디지털 성폭력이란?

디지털 성폭력이란 카메라 등 디지털 기기를 이용하여 신체를 촬영하거나 유포, 유포협박, 저장, 전시 등 정보통신 기술을 매개로 온 · 오프라인 공간에서 발생하는 성폭력을 의미하며, 이는 젠더에 기반한 폭력입니다.

자신의 몸과 성적 행위에 대한 통제권을 박탈하여 이미지로 소비되는 디지털 성폭력은 '데이트 폭력', 스토킹, 성매매, 준강간, 강간과 같은 오프라인 공간에서 발생하는 여성에 대한 성적 폭력과 연속선 상에 있습니다.

디지털 기술이 빠른 속도로 발전하면서 디지털 성폭력 범위는 확장되고 있습니다.

동의 없이 상대의 신체, 사생활, 성행위를 촬영하거나 유포 · 유포협박 · 저장 · 전시하는 행위 뿐 아니라 사이버 공간에서 이뤄지는 성적 모욕이나 비하 등 성적 괴롭힘도 디지털 성폭력입니다. 휴대폰, 컴퓨터, 인터넷 등 디지털 기술을 매개로 타인의 성적 자율권과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라면 어디에서 누구에 의해 발생한 것이든 모두 디지털 성폭력이 될 수 있습니다.

현재 범죄로 규정되는 디지털 성폭력은 성적 목적을 위한 불법 촬영, 성적 촬영물 비동의 유포,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등이 있으며, 점차 다양해지는 디지털 성폭력을 처벌하기 위한 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2

디지털 성폭력, 왜 발생하나요?

불법 촬영, 불법 촬영물의 공유, SNS 단체 대화방에서의 성희롱 등 디지털 성폭력은 가해자가 한 명이 아니라 다수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와 같은 행위가 일어나는 이유는 **‘성폭력이 놀이 문화’**로 자리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왜 찍고, 올리고, 공유하는 것일까요?

우리 사회에는 **“남자끼리 그럴 수도 있지.”**, **“이래야 남자지.”** 등의 인식이 존재합니다. 지배적으로 통용되는 **‘남성성’**을 따르지 않거나 이 연대에 소극적으로 참여하는 남성들은 **‘남자답지 못하다’**라고 **‘혐하’**되기도 하고, 놀림거리가 되기도 합니다

불법촬영물을 함께 보고 즐기기도 **하는 허용적인 성문화**를 만들어내고 남성들의 묵인과 연대를 통해 성폭력 가해자는 경제적 보상과 문화적 지지, 또 다른 남성들로부터의 인정을 얻기도 합니다. 이와 함께 **여성에 대한 신체적 · 언어적 방식의 성적 공격을 정상적인 것으로 간주하고 장려하는 성폭력 문화** 역시 확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3

디지털 성폭력의 특징

디지털 기술은 이미지의 합성, 유포, 소비의 가능성을 무한대로 확장시킵니다.

SNS에 유통된 비동의 촬영물이 불법 성인사이트로 유입되거나 성매매 광고에 활용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시공간을 넘어 유통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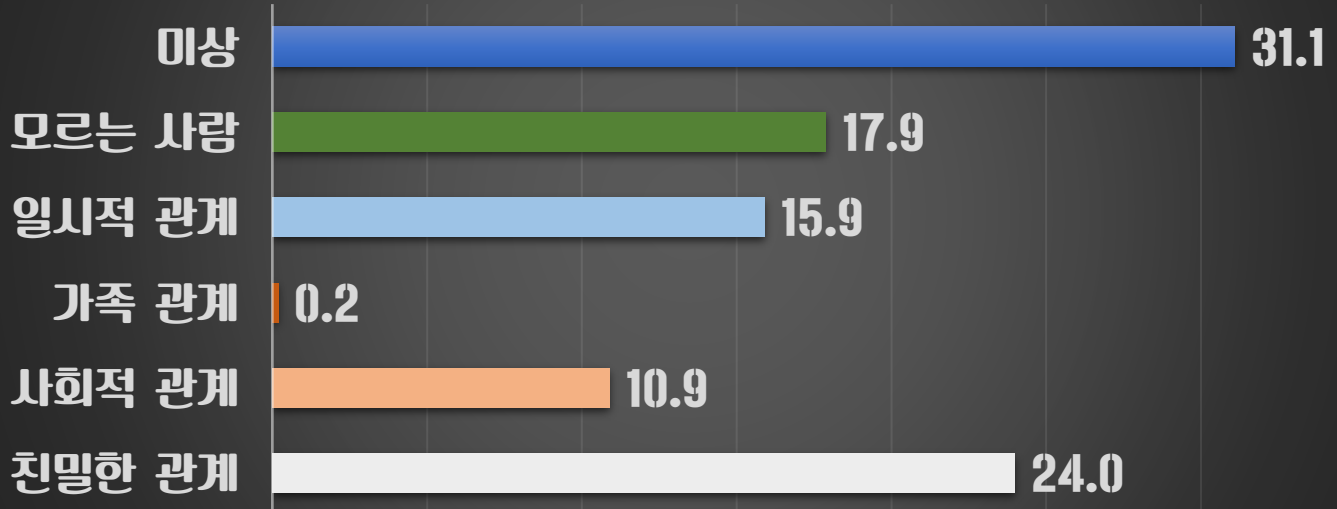
개인 간 파일 공유가 이뤄지는 P2P나 분산되어 있는 조각 파일을 모두 다운받을 수 있는 토렌트 등의 공유 방식이 등장하면서 디지털 성폭력은 **피해와 가해의 구도가 1대 다수**를 이루고, **생산자와 소비자의 경계가 불분명**해진 특징이 있습니다.

디지털 성폭력 산업구조



디지털 성폭력 가해의 특성

2019년 피해자와 상담 통계



- ◆ 미상: 가해자가 확인되지 않아 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 ◆ 모르는 사람: 가해자가 확인되었으나 피해자와 일면식이 없는 사람
- ◆ 일시적인 관계: 채팅 상대 혹은 일시적 만남
- ◆ 가족 관계: 부부를 제외한 친인척, 형제자매
- ◆ 사회적 관계: 학교, 직장, 기관 등 업무 및 사회적 활동에서 관계를 맺은 사람
- ◆ 친밀한 관계: 배우자, 전 배우자, 애인, 전 애인

출처: 한국여성인권진흥원, 2019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보고서

디지털 성폭력 피해의 특성

- ◆ 디지털 성폭력은 인격을 침해하는 폭력입니다.
- ◆ 촬영 및 유포에 대한 분노, 두려움과 공포, 불안 등 심리적 피해를 경험합니다.
- ◆ 재유포의 위협으로 인해 좌절감을 경험합니다.
- ◆ 피해자 비난으로 인해 심리적 상처가 더욱 악화됩니다.
- ◆ 사람과 사회에 대한 신뢰가 무너집니다

4

디지털 성폭력, 한눈에 보기



유형		적용 법률	성격	예시
촬영물 이용 성폭력	촬영	성폭력처벌법 제14조 1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설치형 · 직접 촬영형 ·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 · 유포로 이어질 가능성 다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불법 촬영 · (신체 일부) 치마 속, 뒷모습, 전신, 얼굴, 나체 등 · (행위) 용변 보는 행위, 성행위 등
	유포	성폭력처벌법 제14조 2항 성폭력처벌법 제14조 3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행위 촬영물 유포 · 재유포 · 본인 동의 촬영물(최초 유포자 본인)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의 하에 촬영한 성적인 촬영물, 동의 없이 촬영한 성적인 촬영물을 동의 없이 유포 · 업로더(해비 업로더 포함) · SNS, 단체 대화방, SNS 성인 사이트, 커뮤니티 등에 유포 · 보복성 유포
	재유포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 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촬영 시 동의 여부와 상관 없이 유포 시 촬영 당사자의 동의 없이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유포 · 재유포 · 얼굴 사진과 성적 사진을 합성 하거나 조작하여 유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족, 지인들에게 유포하겠다고 하는 협박 · 이별 후 재회를 요구하며 유포 협박 · 다시 본인과 사귀면 유포를 하지 않겠다고 회유 · 유포 협박으로 금전 요구
	유포 협박	형법 제30장 협박의 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행위 촬영물을 유포하겠다고 하는 협박 · 괴롭힘 등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성적 촬영물을 유포하겠다고 협박 	
	유통 소비	정보통신망법 제42조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 7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 3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 5 전기통신사업법 제92조 전기통신사업법 제104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리 목적으로 사이버 성폭력 촬영물의 유포 방조 및 협력 · 비동의 유포 성적 촬영물을 시청, 공유, 저장 등의 방식으로 소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웹하드, 성인 사이트 등 플랫폼 사업자 및 이용자 · 피해를 확산시키는 재유포자
사이버 공간 내 성적 괴롭힘		성폭력처벌법 제13조 정보통신망법 제70조 형법 제310조 명예훼손죄 형법 제311조 모욕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이버 공간 내에서 성적 내용을 포함한 명예훼손이나 모욕 등의 행위 · 얼굴 사진과 성적 사진을 합성하거나 조작하여 신상 등과 함께 유포 · SNS, 문자, 전자우편, 공개 커뮤니티, 채팅, 모바일 앱 등의 사이버 공간 내에서 발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해자 사진을 성적 사진으로 합성 후 유포(소위 지인 능욕) · 원치 않는 성적 이미지나 영상(링크) 제공 · 사이버 공간 내 성희롱 · 게임 내 성희롱 · SNS 단체 대화방 내 성희롱

5

디지털 성폭력과



온라인 그루밍

그루밍이란 가해자가 피해자와의 신뢰 관계를 형성한 뒤, 이를 이용해 성착취를 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온라인 그루밍은 채팅 어플리케이션과 같은 디지털 매체를 통해, 주로 **가정환경 · 교우 관계에 있어 취약하거나 온라인을 통한 관계 맺기에 익숙한 아동 · 청소년, 그리고 장애인을 대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성인들 역시도 마찬가지로의 상황에 놓일 수 있습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폭행이나 협박이 존재하지 않고, 외관상 자발적으로 영상을 찍어서 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친절을 베풀고 호감과 신뢰를 쌓는 등 의도적으로 접근하여 거짓된 신뢰 관계를 형성한 후 피해자로 하여금 자위 영상을 찍게 하거나 성관계를 갖기도 합니다.

즉, **그루밍을 이용한 성폭력은 온라인 공간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가해자는 영상을 유포하거나 유포하겠다고 협박하고, 이로 인해 가해자의 통제 하에 있게 된 피해자가 성폭력 혹은 성매매 등에 내몰리는 등 성착취가 확장됩니다.

거절할 수 없는 취약성을 이용한 행위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폭력입니다. 상대방이 피해자와 동등한 권력 위치가 아닌 경우, 그 행위를 거절했을 때 피해자에게 사회적, 경제적 불이익이 가해질 것이 충분히 예상되는 상황에서의 동의를 자발적 동의라 볼 수 없습니다.

6

나에게 피해가



발생했다면..?

❖ 자기 비난은 젠더폭력을 지속시킵니다.

내가 더 조심했다면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하나요? 내가 피해의 빌미를 제공했다고 생각하나요? 내가 약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생각하나요? 어떤 자책도 하지 마세요. **피해를 입은 것은 부끄러워해야 할 일이 아닙니다.** 가해자는 당신이 부끄러워하고 대응을 주저할 것을 이용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 대응을 원하나요? 결심했다면 이것부터 !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https://www.women1366.kr/topds/>)에서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상담, 피해 촬영물 삭제 지원, 성폭력 피해자 지원기관과의 연계로 피해자가 수사 · 법률 · 의료 지원을 지속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모든 내용은 비공개로 처리되며 비밀이 보장됩니다. 디지털 성범죄를 인지한 경로와 사건의 정황을 정리하고 증거를 최대한 수집합니다. 기억이 퇴색되거나 증거가 사라지기 전에 사건의 정황을 기록하고, 증거를 최대한 수집합니다. 이미지나 온라인 성희롱, 사이버 스토킹 등을 인지한 경로와 상대에 대한 정보, 사진/영상물 채증과 스크린샷, 게시물 링크 등의 증거를 수집하고, 사건에 대해 기록합니다. 혼자하기 어려울 경우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도움을 받거나 믿을 만한 주변인과 함께 정리해볼 수 있습니다.

7

디지털 성폭력 예방 일상에서부터 !



**‘피해 촬영물’로
인식합니다.**

- 불법촬영물이 ‘야한 동영상’이 아니라 누군가의 ‘피해 촬영물’임을 인정합니다

**궁금해하지
않습니다.**

- 제3자의 호기심으로 인해 피해자의 신고가 어려워지고 유포가 확산될 수 있습니다.
- 이것은 2차 피해를 예방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불법촬영물
유포에
대응합니다.**

- 보지 않고, 다운로드 하지 않습니다.
- 증거채집 후 유포자를 신고합니다.
피해자 본인이 아니더라도 누구나
경찰신고와 심의신청이 가능합니다.

**디지털 성폭력을
하지 않습니다.**

- 불법촬영 및 비동의 유포 촬영물의 촬영자, 유포자는 저작권자가 아닌 성폭력 가해자이며, 이러한 행위는 모두 디지털 성폭력임을 알고 하지 않습니다.